

# | 상대원동 마을지 |

김 성 근  
한국학 중앙연구원

## 마을의 역사와 지명 및 세거성씨

성남지역은 광주군의 일부지역으로 1964년 2월 24일 광주군 조례 제 68호에 의하여 중부면에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경기도 조례 제 470호에 따라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승격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 지역과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을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성남시 조례 제70호에 의하여 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돌마면의 갈현·도촌·옹점·여수·오야소·상탑·하탑·이매·통로·양현·돈서·울·분점·당우·수내·정자동 15개 리는 갈현·도촌·여수·야탑·이매·서현·울·분당·수내·정자·하대원의 11개 법정 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낙생면의 삼가·판교·백현·보평·궁내·금곡·구미·석운·원천·동막·대장·산운·중산운·하산운의 14개 리는 판교·백현·삼평·궁내·금곡·구미·석운·동원·대장·운중의 10개 법정 동으로 동폐합 개편되었다.



대왕면의 신촌·오야·심곡·등자·고산·시흥·둔전·송현·사촌·둔토·금현·노상·노하의 13개 리는 신촌·오야·심곡·고등·시흥·금토·상적의 8개 법정 동으로 통합개편되었다.

중부면의 상대원·창곡·복정·단대·탄·수진의 6개 리는 상대원·창곡·복정·단대·태평·신흥·은행·성남·중·수진의 9개 법정 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이리하여 37개 법정 동이 성립되고 18개 행정 동이 설치되었다.

그 후 단대·수진·신흥·태평·은행·상대원동이 각각 분동되었고 1989년 5월 1일 은행3동이 양지동으로, 단대2동이 금광동으로, 단대4동이 산성동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1989년 시조례 제 931호에 의거 수정구와 중원구로 편제되고 다시 1991년 시조례 제1152호에 의거 분당구가 신설되었다. 여기서 성남이란 지명은, 위에 언급된 공식명칭이 있기 이전의 기록으로는 위례성의 남쪽이라는 뜻과 한양성 남쪽이라는 방위개념으로 불린 기록과 울동에 살았다는 유상운(柳商運)의 묘갈명에 『7월에 성남 옛집에 갔다가...』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성남이란 성의 남쪽을 지칭하는 방향제시인지, 지명으로 불리웠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연발생적으로 통칭하게 되었으리라 믿어진다.

수정구의 명칭은 수진동에서 수자와 복정동에서 정자를 취하여 지어진 명칭이고 중원구의 명칭은 중동의 중자와 상대원동의 원자를 취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분당구는 분당동과 분당신도시 개발의 의미를 살려서 분당의 명칭을 그대로 붙인 이름이다.

현재 성남시의 중원구는 9개 법정 동에 10개 행정 동으로, 수정구는 17개 법정 동에 16개 행정 동으로, 분당구는 18개 법정 동에 7개 행정 동으로 편제되어 있어, 총 44개 법정 동에 33개 행정 동이다.

성남시 44개 법정 동의 지명유래와 각동의 취락과 취락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세거성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분동된 경우는 각 동별로



다루지 않고 동명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금광동

###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단대동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은행정이·논골·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고 1973년 7월 창곡을 병합하여 단대동으로 되었다.

단대동은 1976년 10월 단대1·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단대2동은 1980년 9월 다시 단대2·3동으로 분동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단대2동은 금광1동, 단대3동은 금광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중원구에 편입되게 되었다.

금광동 동명의 유래는 금광리라는 자연취락의 이름을 살려서 동명으로 한 것이다. 금광리에는 고려말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김약시(金若時)가 은거하여 살다 별세하였는데, 그 자손이 벼슬에 오르고 집성촌을 이루어 세상 사람이 광산 김씨네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금광리라 칭하였다. 단대쇼팽 부근이 금광동의 입구로 양쪽 산이 마주 접근하여 병목처럼 지형이 이루어져 광통머리라 칭하기도 하였다. 김약시(金若時)는 자손들에게 내가 살던 이 고을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하였다 해서 일명, 부전오동이라고도 한다.

### (2) 취락과 세거성씨

금광동의 자연취락은 금광리가 웃말·아랫말·중간말로 불리었다. 금광동에는 광산김씨, 남양홍씨와 뒤에 인동장씨 등이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

광산김씨는 金若時(1335 ~ 1406)가 은거하였고 그 자손이 세거하였는



데, 신구전문대 캠퍼스는 김약시 등의 묘소가 있던 광산김씨 종산이다. 김약시의 아들 채는 목사, 절은 현감, 원우(元祐)는 감부를 지냈고, 손자 순성(順誠)은 서윤을 지냈는데 5세손 지남(止南)(1559 ~ 1631)은 광해군 때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하였고, 저서로 용계집을 남기는 등 명문의 빛을 잃지 않았다.

남양홍씨는 익산군파 홍창(洪禔)(1634 ~ 1798)이 처음 정착한 이래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동장씨는 옥천부원군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 광산김씨(光山金氏)

김약시(金若時) ; 1335년(충숙왕4) ~ 1406년(태종6)

공의 휘는 약시이고 호는 음촌이며, 시호는 충정이다. 두문동 72현의 수는 72세다.

김씨의 계보는 신라왕자 홍광에게서 유래되었는데 홍광이 장차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광주에 피하여 은둔하였는데 그대로 그곳이 관향이 된 것이다. 그 뒤 8대를 계속하여 평장사를 지냈다.

고조의 휘는 사원으로 삼중대왕 침의찬성사요 시호는 정경공이며 비는 순흥 안씨 유의 따님으로 순정군부인이다.

중조의 휘는 진으로 광정대부 정당문학과 대제학을 지냈으니 시호는 장영공이며 비는 복주권씨로서 광정대부를 지낸 권윤명의 따님으로 영가군 부인이다. 조의 휘는 영리이니 판군기감사를 지냈으며 비는 남양 홍씨로서 선공시 부령을 지낸 홍승연의 따님이다.

고의 휘는 정이니 보리공신으로서 광성군에 봉하였으며 비는 연안이씨로서 전법사의 판서를 지낸 이방의 따님으로 숙신택주에 피봉되었는데 지원 원년인 을해년에 공을 낳으셨다. 공은 삼형제중 셋째로서 형님 두 분이 계시다. 공은 사마시에 합격, 계해년에 대과에 급제한 후 벼슬이



직제학에 이르렀고 병술년에 사망하였다.

공은 대소과 모두 태종과 나란히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태조 대 왕과는 동갑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부터 교분이 매우 두터웠다. 그 후 태조가 등극하게 되자 공은 부인과 함께 걸어서 광주 금광리 산골짜기에 이르러 나무를 엮어 지붕으로 삼아 비바람을 막고 살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의관을 께여 여겨 이따금 와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혹은 술과 음식 등을 가져다가 대접해도 받지 않으며 그가 살고 있는 동네를 「부전어」라고 이름하였다.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비상해 함이 얼굴에 나타나나 사람들은 그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고, 또한 그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태조가 물색하여 그를 찾아내어 원래의 관직을 주고 억지로 벼슬하게 하매 공은 병을 앓아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핑계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태조는 끝내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대접을 더욱 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어서로써 특별히 성명방의 집 한 채를 하사하고 말미에 임금의 호 송헌 두 글자를 써 주었으니 이는 옛날의 교분으로서 대접한 것이다.

일찍이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지 못한 시기에 태어나서 종묘사직의 망함을 직접 보고도 죽지 못하고 또 홀쩍 속세를 벗어나 멀리 숨지도 못하는 것은 선인의 무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거든 곧 여기에 장사하되 봉분도 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고 다만 등근 돌 두 개를 좌우에 놓아두어 망국의 천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사망하자 자손이 그의 유명을 준행하였다.

이조 현종 때에 공의 8대손 우형이 승지로서 야대를 당하여 공의 유사에 관해 언급하였더니 임금이 재삼 찬탄하며 『너의 할아버지의 절조는 가히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아! 공의 고상한 풍도와 절조는 실로 길야은 제공들과 대등한데 공은 다만 그 사적이 민몰되었기 때문이요 후인들이 또 감히 포장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공의 평소의 뜻을 상하



게 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공의 지조와 절개를 아는 자가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주의 한 마디 말씀의 포장이 가히 백세에 끼칠 수 있고 우암 송문정공이 일찍이 일컬어 『신라·고려시대에 미자·기자와 견줄 만한 두 어진 이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공의 시조 및 공을 가리킨 것이다. 도암 이문정공이 또 공의 묘표에서 가로되 『한결같은 적심은 금석을 꿰뚫기에 족하고 천지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공의 절의는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 현회 또한 때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부인은 여산송씨로서 정량을 지낸 송완의 따님이고, 후취 부인은 원주원씨이다. 아들 첩는 목사이고, 절은 현감을 지냈으며, 셋째 아들 원우는 감무를 지냈다. 손자 순성은 서윤, 칠성은 감찰, 녹은 밀직을 각각 지냈다.

증 현손 이하에도 현달한 이가 많으나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제학을 지낸 굉, 검열을 지낸 신동, 전적을 지낸 우, 좌랑을 지낸 세묵, 전한을 지낸 규, 박사를 지낸 수, 정량을 지낸 한, 부윤을 지낸 영남, 감사를 지낸 지남, 통례를 지낸 위남, 참판을 지낸 질간, 정언을 지낸 진원, 판서를 지낸 우형, 장령을 지낸 만주, 문학을 지낸 태수, 정자를 지낸 성동, 지평을 지낸 수석, 사간을 지낸 화중, 공신록에 오른 득남 같은 인물이 있다.

수석이 명동 등과 의논하기를 『우리 선조의 유명이 비록 저와 같을지라도 세월이 수백년 지나갔고 분묘도 다 허물어졌으니 지금 묘표를 세우지 않으면 후손이 또한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자그마한 빗돌을 세우고 도암에게 글을 빌어서 기록하고도 천양하지 못하는 것은 공의 명을 여기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연전에 광주의 많은 선비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충정공 같은 고상한 절개로서 아직까지 현양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치이다』하고 일제히 연로 곁에서 소리 높여 아뢰어 정경으로 증직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또한 역명의 은전을 내릴 것도 청하여 해조에서 복계하여 윤희를 받



았으니 성조에서 포장하는 거조는 이에 이르러 유감이 없다고 하겠다.

공의 관력과 훌륭한 행실은 세대가 오래 되고 사람이 없어서 다만 가전의 유사 및 도옹의 갈문에 의거하여 가장 한 통을 만드는 바 이는 당세에 입언하는 군자의 서술을 격려하고 태상의 절혜의 의논에 도움이 되고 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高麗名臣傳

純祖實錄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4) 1993年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發行

光山金氏判軍器監事公派譜(卷14) 2003年 回想社 發行

城南市史(1993年) 城南市 發行

朝鮮人名辭書(1937年) 發行

김취(金萃) ; 생년 미상 ~ 1392년(공양왕1)

음촌 약시의 아들로 기품과 도량이 뛰어나 이미 15세에 사마시에 합격



하였고 세종조에 경북 성주란을 다스릴 때에 문무와 유생은 물론이고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 하는데 18세 백의로 천거되매 목사를 제수하고 직접 처리하라 명하니 도임한 지 7일만에 폭도들을 진압시키고 호족을 징벌시키니 온 고을이 조용하여졌다. 1392년 6월에 사망하였다. 추증으로 도승지와 지상원군사를 제수받았다.

1972년 묘소는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에 이장하였다.

###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城南市史(1993年)城南市 發行

光山金氏判軍器監事公派譜(卷14) 2003年 回想社 發行

김원우(金元祐) ; 생몰미상

감무를 지냄

김순성(金順誠) ; 1369년(공양왕18) ~ 1421년(세종3)

자는 경순이며 채의 아들이다. 1390년에 생원, 1399년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평양부서윤을 지냈고 성종조에 좌리원공신이 되었고 성종3년 9월에 한성부서윤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 하였고 한달 후 평창군수로 발령되었고 그 후 다시 평양서윤에 제수되어 취임하였다. 경국대전을 고쳐 지을 때 참여하였다. 1421년 6월에 사망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조참판에 추증하였다.

묘소는 광주 영장산 고비동에 있으며 묘갈이 있다.

### 【참고문헌】

城南의 地名과 人物(張三鉉著)(1997年) 해양문화사 발행

光山金氏判軍器監事公派譜(卷14) 2003年 回想社 發行





김지남(金止男) ; 1559년(명종14) ~ 1631년(인조9)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 자는 자정 호는 용계이며 순성의 현손이며 아버지는 영동현감을 지낸 표이다. 재종숙 양에게 입양되었다. 1591년(선조2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다. 1593년 정자가 되었고 지제교, 수찬, 교리, 응교, 정언, 사간, 장령, 집의, 필선, 보덕, 승지, 예조, 병조, 형조참의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군5) 집의로 있을 때 박응서의 무고로 영창대군을 죽이자고 주장하는 지평 정호관을 면박하였고 인목대비를 폐하려는 이이첨 일당에 반대하면서 그 죄상을 폭로하였다. 외직으로 행주관관과 경기 평안, 전라, 강원도의 도사를 거쳐서 경상감사 및 남양, 순천, 상주, 청풍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때 임명된 조신들이 외직에서 모두 파직되었으나 특별히 유임되었다. 선생의 저서로는 용계유고가 있으며 2000년 청명일에 광주시 실촌면 삼합리 산50의 1번지 파조 김약시 신도비후록에 이장하였고 73세에 사망하였다.

### 【참고문헌】

光海君日記

國朝人物考

增補文獻備考

國朝榜目

朝鮮人名辭書(1937年)發行

光山金氏判軍器監事公派譜(卷14) 2003年 回想社 發行

김우인(金字仁) ; 1608년(선조 41) ~ 1659년(효종10)

선생의 자는 원지, 별호는 탁계이며 조선중기의 문신 지남의 손자이다. 관력은 통정 진보현감을 지냈으며 효묘조에 교관을 선발하는 데 참여하였고 많은 문인들을 배양하여 과거에 급제한 자만도 20여명이 되었



고 또한 사마시에 합격한 자만도 40여명에 달하였다. 탁계문인록을 간행하였다.

### 【참고문헌】

濯溪門人錄

光山金氏判軍器監事公派譜(卷14) 2003年 回想社 發行

남양홍씨(南陽洪氏)

홍창(洪昶) ; 1643년(인조12) ~ 몰년미상

인동장씨(仁同張氏)

옥천부원군

## 2. 상대원동

###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지역으로 대아원(하대원동) 위쪽에 있으므로 웃대원 또는, 상대원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보통골·중간말과 군내면의 사기막골을 병합하여 상대원리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고,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어 상대원동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에 상대원1·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에 상대원1동은 1·3동으로 분동되었다. 1989년에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상대원동 동명의 유래는 상대원 일대가 보곡동이었는데, 송언신의 서원이 있는 곳(상대원)과 이집의 서원이 있는 곳(하대원)을 구별하여 상대원과 하대원으로 개칭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대원이 있어서

위쪽을 상대원 아래쪽을 하대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 취락과 세거성씨

상대원동에는 보통골·사기막골·새말·송촌·안골·중간말·황촌 등이 있다.

보통골은 온양방씨, 남원양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양방씨는 아호가 보통이요 힘이 장사인 방유량이 정착한 이래 그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보통골은 「보통이 사는 골」에서 유래한다.

보통골의 유량은 숫골(탄리)에 은둔하였던 방순의 3남인데 보통골에 분가하여 후손이 세거함으로써 방씨 취락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포은 정몽주 문인으로 상주목사를 역임한 유량의 아들 재는 태백산에 은거하였으며, 택은 조선조 개국공신, 속은 군수, 심은 첨정이었다. 손자 천록은 부사이고, 을록은 부사직, 을경은 현령이었다.

송촌의 여산송씨는 정주목사 송수(1470 ~ 1518) 때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는 광주이씨 광원군 이극돈(1435 ~ 1503)의 사위로 장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극돈이 생전에 사위를 자기 곁에 묻어달라고 해서 극돈의 묘 옆에 장사지냈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는 남편이 일찍 죽자 친정 근처에 살면서 아들 넷을 성공시켰다. 아들 맹경은 중추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 숙경은 사도첨정·왕자사부, 말경은 양천현령, 범경은 주부이었다. 손자 희민은 한성부좌윤, 희성은 의금부도사, 율은 종성부사, 율은 창녕현감, 입은 부사과이었다. 상대원에 세거한 송씨는 수의 3남인 말경의 후손인데, 말경의 손자 언신(1542 ~ 1612)은 퇴계의 문인으로 5도관찰사와 5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황촌의 창원황씨는 황촌에 거주하는 황재남(1939년생)의 11대조인 황윤구(1607 ~ 1691)가 강원도 철원에서 이거하여 정착한 후 후손이 세거하여 황씨 촌락이 형성되었다. 윤구는 금성현령 담의 차남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를 역임했다. 윤구의 아들 복은 진사, 창은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감은 증호조참판인데 그의 아들 성하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밀양박씨는 박형원(1945년생)의 7대조 통덕랑 박장민(1758 ~ 1813)의 부인 여산송씨가 그 아들과 함께 친정집 근처로 이주함으로써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장민의 5대손 수병의 부인 전주이씨는 청상과부로 풍상을 겪으면서 독자 용철을 길러 내고 세전된 유품과 문적을 보전하여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문중과 유림이 1990년 정열비를 세웠다.

남원양씨는 우참찬 중추부사를 역임한 양연(? ~ 1542)의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양명득(1909년생)은 양연의 16대손이다.

사기막골은 옛날 백제시대에 사기를 굽던 곳이라 불리워진 이름인데, 사기그릇 조각, 그릇 받침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에는 임씨와 경주 최씨가 정착한 이래 김해김씨 · 진주강씨 · 해주정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해김씨는 석상공파의 후손 김진희가 처음 정착하여 9대째 살고 있으며, 진주강씨는 통계공파의 16세손인 강만영이 이천에서 조부 강세전을 따라 서울에 와서 살다가 조부가 별세하자 이천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려가던 도중, 길이 저물어 진외가(김씨)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시신을 붙잡고 이천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이천에서 산소를 호랑이혈에다 써서 자손에 변사가 자주 일어나 조부 세전이 만영을 데리고 개구멍으로 빠져 도망왔듯이 내려가면 또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강씨네가 정착하게 되었다

해주정씨는 남한산성에서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새말은 6·25 후에 새로 생긴 마을인데 박씨 등이 살고 있다.

중간 말은 사기막골과 보통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사기막골의 김해김씨가 분가하였다.



온양방씨(溫陽方氏)

방숙(方淑)(생몰미상)

군수

방순(方恂)(생몰미상)

호는 만송당, 彦暉의 1男, 문과 예조참의, 시호는 문의

방심(方深)(생몰미상)

첨정

방유량(方有良)(생몰미상)

호는 보통, 순의 3남 포은 정몽주 문인, 상주목사

방택(方澤)(생몰미상)

조선조 개국공신

방재(方載)(생몰미상)

대백산 은거

방천록(方天祿)(생몰미상)

부사

방을록(方乙祿)(생몰미상)

부사직

방을경(方乙卿)(생몰미상)



## 여산송씨(礪山宋氏)

송수(宋壽) ; 1470년(성종1) ~ 1518년(중종13)

자는 기수, 진사, 경릉참봉침정보 화순, 영광, 합천, 밀양, 황주, 정주, 목사 합천에서 사망. 증직으로 병조참판 제수 받음. 묘소는 광주 중부면 하대원동에 있다. 광주이씨 광원군 이극돈의 사위로 장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며 극돈이 생전에 사위를 자기 곁에 묶어 달라고 해서 장인 극돈의 묘 옆에 장사지냈다.

부인 이씨는 남편이 일찍 죽자 친정 근처에 살면서 아들 넷을 성공시켰다. 아들 맹경은 중추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숙경은 사도침정왕자사부, 말경은 양천현령, 범경은 주부이었다.

손자 희민은 한성부좌윤, 희성은 의금부도사, 율은 종성부사, 윤은 창녕현감, 입은 부사과이다.

송말경의 손자 언신(1542년 ~ 1612년)은 이퇴계의 문인으로 5도관찰사와 5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 【참고문헌】

城南의 地名과 人物

礪山宋氏正嘉公派族譜(卷1)

송맹경(宋孟璟)(생몰미상)

자는 백규 송수의 1남 병사동지중추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역임하였고 75세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광주 중부면 하대원리 선영에 묘갈이 있다.

송숙경(宋叔璟)(생몰미상)

자는 중규 송수의 2남 1534년(중종29) 생원, 사도침정. 왕자사부 지냈



으며 75세에 사망하였다. 묘소는 광주 중부면 하대원리 선영에 있다.

송말경(宋末璟) ; 1507년(중종2) ~ 1570년(선조3)

송수의 3남 1543년 진사, 1544년 헌릉참봉, 과천, 양성, 진천, 우봉, 양천현령을 지냈다.

64세에 사망하였다.

송범경(宋範璟)

송수의 4남으로 주부를 지냈다.

#### 【참고문헌】

礪山宋氏正嘉公派族譜(卷1)

#### 【참고문헌】

礪山宋氏正嘉公派族譜(卷1)

송언신(宋言愼) ; 1542년(중종37) ~ 1612년(광해군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과우(寡尤) 호는 호봉(壺峯). 송말경의 손자이며 부사 율의 아들이다.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유희춘과 노수신의 문하에 출입하였고 1577년(선조10)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과 정언을 지냈다. 젊어서는 언관으로 서인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섰다. 1589년 기축옥사 때 정여립과 연루되어 부교리에서 면직되었다. 그 뒤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1592년에 작직되었다. 1596년 동면순검사로 다시 복직된 뒤 대사간,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일찍이 불교를 배척 승 보우를 죽일 것을 건의하였으며 동면순검사로 있을 때에는 인력이 부족한 겨울철에 수성책으로 성벽에 물을 부어 얼리는 계책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대신으로 속어면순과 같은 야담집에 그의



이름이 올랐고 광해군 초년에 축출되었다. 시호는 영양이고 저서로는 성학지남이 있다.

### 【참고문헌】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국조방목

청선고

朝鮮人名辭書(1937年)發行

### (3) 산하

검단산 : 보통골 뒷산 일명 망덕산이라고 한다.

푸령산 : 보통골 남서방향에 길게 놓인 산, 장등 너머가 갈현동이다.

벌렁고개 : 논골서 농사지어 나르던 고개로 힘이 들어 험레벌떡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골고개 : 보통골서 사기막골로 가는 고개

이배재 : 광주읍 목현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상대원 동쪽에 있는데 광주장 보러 가는 길로 퇴계 이황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다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넘고 보면 황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 계신 한양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 떠났다고 하여 이배재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

가락골 : 사기막골 동쪽 골짜기이다.

등골 : 작은골과 탐탁골 사이의 골짜기이다.

부중골 : 사기막골 남서간에 위치해 있다.

은골 : 보통골 남쪽 광주 가는 도로가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골 : 사기막골 북쪽 화성사 뒷골짜기이다.

절골 : 사기막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절이 있다가 바퀴벌레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탐탁골 : 작은골과 가락골 사이에 있다.

### 3. 신흥동

####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동 탄동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남씨편과 독정리를 병합하여 탄리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가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고,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탄동의 일부를 갈라서 신흥동으로 칭하였다. 1975년 10월 신흥 1·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 9월 1일 신흥2동을 갈라서 신흥2·3동으로 개편되었다.

신흥동의 명칭은 1973년 시승격 당시 동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부흥하자는 뜻으로 시정자문회의에서 붙인 이름이다.

#### (2) 취락과 세거성씨

신흥1동은 옛날 산야이었을 뿐 취락이 없었고, 신흥2동은 용정촌(독정리)이 있었으며 신흥3동은 새고개라는 취락이 있었다.

용정촌(독정촌)은 숲골(탄동)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정촌의 유래는 지금 성남초등학교에서 산성동 쪽으로 가는 길이 숲이 우거져 마치 옹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여 옹촌이라 불리고 또 신흥주공아파트 자리에 정형운의 손자 정대년(1503 ~ 1578)이 지은 정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옹자와 정자를 취하여 용정촌이라 불렀고, 그 일대 산을 용정산이라 칭하였다. 그 후 정자에는 선비들이 모여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여 「옹정」을 독정리로 칭하게 되었다고 전하여진다.

용정리에는 동래정씨 정형운이 최초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운의 아들 전(1475 ~ 1513)은 대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어 대교로 승진되었으나 부친상에 슬픔이 사무쳐 병이 되어 상중에 세상



을 떠났다. 형운의 손자 정대년은 좌찬성을 지낸 후 응정촌에 낙향하여 집을 짓고 사암이라 하였는데 그의 호도 사암이니, 이는 조상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응달말 일대에는 동래정씨 묘역이 있다.

새고개는 평양조씨의 세거지였는데 최초의 정착인은 부호군을 역임한 조계홍(1513 ~ 1590)이다. 조계홍은 조선조 개국공신인 조준의 아우로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조건(1351 ~ 1425)의 5대손이다. 계홍은 충좌위 부호군을 역임하였으나 상호에 이르기까지 자손은 출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평양조씨(平壤趙氏)

조건(趙狷) ; 1351년(충정왕3) ~ 1425년(세종7)

고려말의 충신이요, 이조개국공신 준의 동생이다, 조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양 지는 신향 호는 송산이다. 초명은 윤이다.

아버지는 판도판서 덕유의 둘째 아들 어머니는 오의의 딸이다. 영의정부사 준의 동생이다.

견은 유년에 출가하여 여러 절의 주지를 지내다가 30세가 넘어 환속하고 오랜 승직경력으로 좌운에 서용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안렴사를 지냈다. 1392년(태조1) 상장군으로 이성계 추대에 참가하고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394년 경상도 도절제사, 1397년 지중추원사, 1400년(정종2) 삼사우복야를 거쳐 1402년(태종2년) 도총재 재직 중에 사은사의 명을 받았으나, 사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칭하여 이를 사퇴하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직첩을 몰수당한 뒤 축산도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었다. 1403년 좌군도총제가 되고 평성군에 봉하여졌으며, 이해에 진하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7년 충청도 도절제사 겸 수군도절제사를 거쳐, 이듬해 고의로 딸의 입명을 저지한 일로 개령에 부처되었다. 곧 사면되어 청성군에 봉하여지고, 1410년 봉안사가 되어 태조 영을



완산부에 봉안하였다. 1419년(세종1) 판우군도총제부사에 보임되었고 1421년 71세로 퇴관하여야 하였지만 궤장을 받고 계속 벼슬길에 있다가 같은 해 12월 평성부원군에 진봉되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있어서 조선이 개국되고 친형 준으로 인하여 개국공신을 주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태조는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호조전서, 평성부원군, 개국공신, 평간공을 내리고 여러 번 불렀으나 견은 양주 송산의 고사리를 캐먹기가 원이요, 성인의 백성 되기는 원치 않소, 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자를 윤에서 견으로 고쳤다. 일부러 개건변을 쓴 것은 나라가 망해도 죽지 않는 것은 개라는 뜻과 또는 개는 주인을 생각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청계산에 은거하여 살 때에 태종이 청계산까지 친히 찾아가 나올 것을 권하였으나 끝내 굽히지 않고 양주송산에 숨어 여생을 마쳤다. 견이 사망하자 사람들이 견의 상여를 메고 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명정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따라가 보니 지금의 성남 여수동 뒷골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후손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곳에다 묘를 썼다고 한다. 견은 임종할 때에 내 묘표에는 고려의 벼슬이름만 쓸 것이지 새 조정의 벼슬 이름은 쓰지 말라 하였다. 그래도 형 조준이 이조의 개국공신, 호조판서라고 비석을 세웠더니 어느 날 뇌성벽력이 치며 비석을 깨뜨렸다고 한다. 이처럼 조건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불사이군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조와 절개를 지킨 선비였음을 죽어서까지 보여준 고려의 충신이었다.

현재 여수동 묘역에는 아들 의정부좌찬성, 중정대부 조석산의 묘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동족집단 세거성씨임을 알게 한다. 형 준의 아들 대림은 태종의 둘째딸 경정공주와 혼인함으로써 태종과는 사돈간이 된다.

### 【참고문헌】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崧陽耆舊傳

朝鮮人名辭書(1937年)發行

城南市史(1993年)城南市 發行

조계홍(趙繼興) ; 1534년(중종29) ~ 1590(선조23)

조계홍은 고려말 조선초의 개국공신 조준의 아우로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조건의 5대손이다. 계홍은 어해장군행 충좌위부호군을 역임하였다. 재배 인동장씨와 사이에 3남 1녀가 있고 묘소는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단대동) 단현에 있다.

#### 【참고문헌】

城南市史(1993年)城南市 發行

平壤趙氏大同譜(4권)

조석산(趙石山)(생몰 미상)

조건의 아들 의정부 좌찬성

#### 【참고문헌】

平壤趙氏大同譜(4권)

### 4. 단대동

####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초면 단대동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



70년대의 단대동 뒷산. 뒤쪽 멀리 관자촌이 보인다





70년대의 단대동 풍경

역 폐합에 따라 은행정이·논골·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라 하고 중 부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단대동으로 개칭하고 은행정이는 은행동에 편입시켰다. 단대동은 1967년 10월 1·2동으로 분 동되고 1980년 9월 3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83년 10월 4동으로 분동되 었다. 1989년 5월 분구에 따라 단대 2·3동은 금광동으로 개칭되어 중원 구에 편입되었다. 1동과 4동은 합하여 단대동으로 단일화 되어 수정구에 속하게 되었다.

동명의 유래는 1973년 시 승격 당시 탄리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려면 고 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붉은 고개 밑이 되므로 단대골·또는 던데·단대 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조 때에 이미 단대라고 기록 하였다.

## (2) 취락과 세거성씨

단대동은 논골·양지말(웃말) 등의 취락이 있었다. 논골에는 문화유씨 와 윤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유씨는 유함형이 정착한 이래로



그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함형은 문간공 유관(1346 ~ 1433)의 11대손이다.

## 5. 산성동

###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단대리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단대리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 단대동이 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창곡동의 일부와 단대4동을 병합하여 산성동이라 하였다.

산성동의 명칭은 동명 개편시 남한산성 진입로인 산성로와 접해 있어 산성동이라 하였다.

### (2) 취락과 세거성씨

산성동에는 김성골·물방아거리·서낭당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김성골은 김씨네가 세거하였으므로 불리워진 이름인데, 수원김씨는 조선후기부터 세거하였다고 한다. 느티나무 위쪽에는 큰 집터가 있어 주춧돌과와편이 출토되고 우물도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수원김씨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서낭당에는 검문소 삼거리 주변에 파평윤씨가 세거하였다. 파평윤씨는 재령군수 윤세헌(1610 ~ 1669)의 증손 필옥이 파주 적성서 살다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필옥의 아들 윤웅상이 서낭당으로 이주하여 후손이 세거하였다.

## 6. 양지동

###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은행정이 논골 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시켰다. 그 후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단대동에서 은행정이를 갈라서 은행동을 만들고, 1979년 9월 은행동은 은행 1·2동으로 분동되었다. 다시 1988년 7월 다시 은행2동은 은행2·3동으로 분동되고 1989년 5월 은행3동을 양지동으로 개칭하여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양지동은 단대천을 경계로 은행동과 경계를 이루면서 남향관의 양지쪽에 위치하여 양짓말이라 부르던 곳인데 이로 인하여 양지동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양지동은 옛 단대동의 양지말 지역으로 문화유씨·광산김씨·연안김씨·평산신씨 등이 세거하였다.

문화유씨는 문간공 유관의 11대손으로 단대동 논골에 정착한 유함형의 후손들이 분가하여 살았다. 광산김씨는 여말·조선 초에 금광동에 은거하여 절개를 지킨 김약시의 후손이 분가하여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연안김씨는 김황 때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은 1419년 문관에 급제하여 예조참판을 역임했고, 그의 손자 김사결은 양양부사를 지냈다. 연안김씨는 현 문원중학교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였다고 한다.

## 7. 은행동

(1) 동명의 유래

은행동은 1975년 7월 1일 성남시 조례 제70호에 의하여 단대동의 은행정이를 갈라서 은행동이라 칭하고, 1979년 9월 15일 분동하여 은행1·2동이 되었다. 1989년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동명은 은행정에서 유래한다. 은행시장 뒤편에 수고 30m, 둘레 6m, 수령 약 300년 가량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여름이면 정자나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정이라 불리우는데 으능쟁이·은행쟁이라고도 한다. 은행동은 바로 이 은행나무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 (2) 취락과 세거성씨

은행동에는 감나무골·안골·배나무골·이바리골이 있다.

은행동의 세거성씨로는 순흥안씨·단양우씨·동래정씨·해주오씨·이천서씨·창원황씨 등이 있다.

## 창원황씨(昌原黃氏)

황윤구(黃胤耆) ; 1607년(선조40) ~ 1631년(인조9)

선생의 자는 이윤 수계통정대부승정원 좌승지(壽階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황복(黃福) ; 1632년(인조10) ~ 1663년(현종4)

자는 대부 윤구의 2남 묘소는 단대임좌에 있다

황선(黃璇) ; 1652년(효종3) ~ 1723년(경종3)

자는 자망 또는 태봉이라 하였으며 윤구의 3남이다. 증직으로 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관을 제수받았다. 묘소는 세촌단대 둔곡자곡에 있다.

황성하(黃聖河) ; 1691년(숙종17) ~ 1775년(영조51)

자는 군후 윤구의 손자 수직으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를 제수받았다. 묘소는 단대 둔곡선영 안산묘좌에 있다



황정(黃禎) ; 1730년(영조6) ~ 1814년(순조14)

자는 순포 묘소는 단대 선영하 묘좌에 있다

황인수(黃仁綏) ; 1749년(영조25) ~ 몰년미상

묘소는 단대 둔곡선영에 있다

황종섭(黃鍾燮) ; 1809년(순조9) ~ 몰년미상

기규의 아들 묘소는 단대 둔곡선영에 있다

『참고문헌』

昌原黃氏世譜(4卷)

城南市史(1993年)城南市發行

순흥안씨(順興安氏)

순흥안씨 씨족들이 성남에 토착성씨로 세거하게 된 기록으로는 광주군 대왕면 칠곡리에 근 300년 전에 토착성씨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광주군 돌마면 울리 영장산도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참찬공, 찬성공, 판서공, 한림공 등 4위의 묘소가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4분을 모시는 사당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광주군 동족집단상황

구 광주군의 토착성씨별 집성촌에서 집단동족 부락을 이루면서 성남시에 해당되는 중부면,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에 세거한 집단씨족 성씨별 부락을 참고로 살펴본다. 아래 참고문헌에서 토착씨족별 세거년도 표기는 년도의 차이와 이보다 더 많은 씨족별 세거성씨들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부면

불당리 밀양박씨 27세대 400년

상대원리 온양방씨 24세대 250년

상대원리 김해김씨 30세대 240년

수진리 전주이씨 38세대 280년

### 대왕면

일은리 전주이씨 34세대 200년

일은리 밀양박씨 49세대 350년

일은리 진주강씨 28세대 250년

자곡리 경주김씨 24세대 150년

세곡리 남양홍씨 45세대 600년

칠곡리 순흥안씨 24세대 220년

고등리 덕수이씨 50세대 400년

금토리 안동권씨 32세대 200년

둔전리 김해김씨 20세대 150년

### 낙생면

산평리 외 3개구 전주이씨 107세대 250년



관교리 연안이씨 45세대 200년  
 백현리 전의이씨 44세대 230년  
 대압리 우계이씨 25세대 300년  
 백현 구미리 용인이씨 22세대 100년  
 삼평리 경주김씨 41세대 150년  
 구미리 안동김씨 59세대 250년  
 백현리 문화유씨 24세대 170년  
 삼평리 청주정씨 21세대 300년  
 정자리 전주이씨 30세대 100년

**돌마면**

정자리 전주이씨 30세대 100년  
 수내리 한산이씨 78세대 300년  
 울리 청주한씨 40세대 400년  
 야탑리 경주이씨 45세대 200년  
 갈현리 평택임씨 36세대 340년



**『참고문헌』**

京畿事典(1959年) 京畿事典編纂委員會 創文社 發行

